

보고 듣고 맡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아름다움을 감각하다

김영훈 지음

김영훈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종묘의 정전을 바라 보았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지붕에서 내리는 빗물은 신비로웠다. 빗물은 어둠 속에 감춰진 19개의 신실(神室)을 깨우는 듯했다. 그는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숭고함을 느꼈다.



김 교수의 체험처럼 사람들은 특정 공간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를 '감각 지도'라고 칭할 수 있겠다. 저마다 다른 미적 체험과 경로가 다양한 만큼 미에 대한 심미안 또한 상이하다. 김 교수의 책 '아름다움을 감각하다'는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닿는 모든 감각으로 체험하는 문화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감으로 체험하는 아시아의 미



색색의 우산으로 시각 효과를 극대화한 포루투갈 아게다 우산축제.

와 문화'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초점을 맞췄다.

"궁궐을 찾든 미술관을 찾든 누구나 그 공간만이 가진 고유한 냄새, 습도, 온도를 느낀다. 색과 조명은 우리 눈을 대상에 밀착시킨다. 주부 사람의 소리, 온갖 소리가 합쳐져 귀에 들어온다."

사실 미적 감각은 중층적이고 복잡적이다. '화학작용일 뿐 아니라 신경작용이며 끊임없이 외부 대상과 상호 작용하고 지각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저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비교되는 미의 내용과 의미를 찾아간다. 인류학을 전공한 배경 지식은 자연스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에 초점

이 맞춰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양의 미적 경험과의 연결은 색다른 묘미를 준다.

먼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의 내용이 펼쳐진다. 김영랑의 시 '오-매 단풍 들것네'를 예로 들며 자연이 주는 색감을 이야기한다.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색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색과 관련된 감성이 잘 드러나는 매체가 축제다. 인류의 다양한 축제 속에서 색은 그 자체로 중심을 이뤘다.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인도의 홀리 축제다. 4대 힌두 축제 하나인 홀리는 색색의 가루를 풍선에 담아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페스티벌이다. 향에 부여된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탐색



청자 사자 모양 손잡이 뚜껑 향로.

한 후각도 흥미롭다. 냄새는 단편적인 숨을 들이마시는 것에서 나아가 기억을 환기한다.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매개체다. 서양의 향료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가 기독교의 등장이다. 향 사용이 공인되면서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1975년 발굴된 신안해저선에는 동아시아 향 문화를 알 수 있는 향료와 향료 등이 담겨 있었다. 중국의 향 문화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됐음을 보여준다.

촉각은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다. 최근 아시아관광산업에서 주목할 분야가 피부마사지다. 저자는 "마사지의 기원과 역사를 따져보면 왕이나 귀족의 건강과 미



연주자는 물론 관객까지 흥을 느끼게 하는 우리나라 사물놀이.

용에서 출발해 종교 사원에 학교를 차려 마치 의사를 양성하듯 교육받은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나무를 다듬어 매끈하게 만든 목조가구는 '시각적 촉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순백의 백자가 지닌 티 없이 맑은 표면은 촉각적 느낌을 자극한다.

미식과 연계되는 미각은 하나의 문화체제다. 혀가 감지하는 맛은 일부이며 후각, 시각, 경험과 기억이 어우러진다. 2018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식도락 관광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여행지의 자연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혼합돼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감각은 다름 아닌 청각이다. 청각만큼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감각도 없다. 한국의 사물놀이 관람은 우리나라를 찾는 이들에게 인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다. 팽과리, 징, 장구, 북이 펼쳐내는 화음은 신명 그 자체다.

저자는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 내에 존재한다"며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기쁨의 순간도 몸과 감각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

〈서해문집·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이 물러가고

김수연 지음

제지 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기계 소음에 묻혀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 김규남과 송태성. 두 사람의 인연은 몇 해 전, 규남이 중학생이던 태성의 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규남은 변변치 않은 과거 모의고사 성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마침내 '연극'을 선택했다.



이후 규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 수업을 통해 태성과 만난다. 연극이 규남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태성 또한 처음 학교 무대에 올랐다가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다.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가 김수연의 신작 장편 '여름이 물러가고'는 '연극'을 향해 뛰어든 두 청춘의 이야기이다. 한때는 모든 걸 내던지게 했지만 현실이라는 중압감에 짓눌렸던 이들은 다시 한번 연극에 열정을 드러낸다.

신예 작가 김수연은 제2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으로 등단했으며, 심사 당시 "당선작 선정에 이견이 없어서 상급하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소설에서 두 인물 김규남과 송태성의 현실은 답답하고 암담하다. 다세대 주택 한 칸짜리 반지하방에 살며 공장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할 뿐이다. 연극을 통해 뭔가 새 힘을 얻고 주목을 받고 싶다는 열망을 누르며 노동에 매인다. 그러다 규남이 도박으로 보증금 오백만원을 날리면서 평화로보이던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돈은 태성이 카페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모은 것인데, 규남은 뻔뻔하게 돈을 모을 굉장한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자가 옳았다

도올 김용옥 지음

도올 김용옥은 그동안 저술과 강연을 통해 노자사상을 꾸준히 설파해왔다. 50년 전 노자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철학을 시작해온 도올의 사상계에서 노자는 가장 핵심이다. 이번에 '노자 도덕경'을 김용옥이 유려한 우리말로 번역하고 뜻을 명료하게 풀 '노자가 옳았다'가 출간됐다.



도올은 20대 초반 대학생 때 김경락, 김경률 두 교수를 통해 노자를 접하고 학문의 진로를 동양철학으로 확고히 했다. 그후 중국, 일본,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공부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왔다.

저자는 노자는 철학 중의 철학이라고 본다. 고착된 사고의 전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자의 첫 문장은 "도가도비상도"이다. 즉 도를 도라는 어떤 규정된 틀에 가두면 그 도는 늘 그러한 상도(常道)가 아니라는 의미다. 노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변화와 지속의 항상성을 확고히 천명한다.

또한 노자는 삶의 철학이다. 대자연의 엄연한 질서를 탐구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를 이야기한다. 특히 부쟁(不爭)을 말하면서 문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에 달아 있다.

도올은 또한 노자는 정치철학이라고 강조한다. 무욕, 무위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노자는 통 큰 우주론적 사유이기도 하다. 인간 사유가 종합적으로 인지되는 통합적 비전이다.

도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인류사의 정위(正位)이며 정점(頂點)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50년 동안 풀어왔던 노자를 털어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모두 노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나무·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주를 만지다

권재술 지음

'우주에는 너희 철학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네.' (윌리엄 셰익스피어). 최근 출판계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가 수학과 더불어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등 과학 관련 대중서들이 쏟아지고 있는 점이다.



권재술 전 한국고원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펴낸 '우주를 만지다-살이 물리학을 만나는 순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친절하고 물리학 에세이다. 이 책은 지구의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작은 원자 단계의 미시세계부터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우주 너머의 거시세계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별 하나 나 하나', '원자들의 춤', '신의 주사위 놀이', '시간여행' 등 4장으로 구성된 책은 과학과 예술, 천문과 인문을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기일식, 외계인, 상대성이론, 슈뢰딩거의 고양이, 입자와 파동, 진공과 우주, 블랙홀, 이기적 원자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아직 낯설기도 한 물리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책에서는 과학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물리학자의 연륜이 담긴 인생에 대한 고찰도 만날 수 있으며 각각의 글에 함께 배치한 '체서 고양이 웃음 같은 것이라' 등 직접 쓴 짧은 시편들은 잔잔한 감성을 전해준다. 부록으로 '미시 세계, 작은 우주', '거시 세계, 큰 우주',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 등 세 편의 글을 따로 실었다.

'털립과 울림' 등을 집필한 물리학자 김상욱은 이 책에 대해 '노학자의 아름다운 물리 에세이자 첫 시집'이라고 표현했다. 〈특별한 서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